

빈곤과 공감의 문제: Wordsworth의 “Old Cumberland Beggar”

박 아 란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서정 담시집』(*Lyrical Ballads*)에 실린 「늙은 컴벌랜드 거지」(“Old Cumberland Beggar”)는 비평가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적”인 작품이다. 메이슨(Michael Mason)이 말하듯,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 시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성명이라고 공격했으며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의 정치적, 사회적 관련성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치적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이 시를 편들었다 (308). 어쨌거나 워즈워드가 펜윅 노트(Fenwick note)에 적은 “구빈법”(Poor Law)에 관한 언급을 보면, 이 시의 정치적 함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 시의 정치적 함의를 인정하고 난 후에도, 시인이 시에 담고자하는 정치적인 함의가 무엇이나에 대한 해석도 수없이 갈라지는데, 워즈워드가 구빈법에 반대한다는 주장부터, 구빈법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주장까지 비평가들의 의견은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 시가 구빈법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말 “빈곤”과 이에 대한 “구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의 “빈곤” 개념은 어떠한 역사적 변천 속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파악하고, 워즈워드가 이 시에서 취하는 입장이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의 화자, 혹은 시인의 늙은 거지에 대한 태도를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오는 “공감”(sympathy)과 “관망자”(Spectator)의 논의를 통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1. “빈곤”(Poverty)을 바라보는 시각

워즈워드가 이 시를 발표한 18세기 말엽¹⁾은 빈곤에 대한 토론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1797년, 프레데릭 이든(Sir Frederic Eden)이 작성한 도서 목록에는 1759년과 1797년 사이에 출판된 빈곤에 대해 다룬 서적이 142권이나 등재되어

1) 이 시는 1798년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1800년에 처음 출판되었다(Mason 308, Simpson 166).

있다(Simpson 167). 이러한 논란은 심슨이 지적하듯, 빈곤에 대해 동정적인 시각과 통제하고 다스려야한다는 시각 등 다양했으며, 때로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섞여 있기도 하였다(166-67). 이 당시 빈곤에 대한 시각을 크게 나누어보면, 가난한 사람을 통제해야 하는 야수나 범죄자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억압적 수단과 차별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18세기 인본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교육하며, 부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형제애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Geremek 239-40). 그러나 사실 이 때에 나온 사회 정책들을 이 두 입장으로 정확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으며, 이 시는 두 입장을 적당히 섞은 당시의 빈곤 대책들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 보인다.

But deem not this Man useless. - Statesmen! ye
Who are so restless in your wisdom, ye
Who have a broom still ready in your hands
To rid the world of nuisance; ye proud,
Heart-swoln, while in your pride ye contemplate
Your talents, power, and wisdom, deem him not
A burthen of the earth. (67-73)

그를 “쓸모없다”거나 “지상 위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표현에서, 1차적으로 워즈워드가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메이슨은 주석에서, 작품이 쓰인 시기 즈음에 있었던 “빈민 구제”(poor relief)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은 1796년의 “Pitt's abortive Bill”임을 지적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제도화된 구제”(institutionalized relief)를 다듬고 확대시켰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School of Industry”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작업장”(work house)²⁾을 강조하고 있다 (312n).

그러나 “빗자루”로 쓸어버리려는 식의 개혁은 럼포드 백작 벤자민 톰슨(Benjamin Thompson, Count Rumford)과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등 당대의 특징한 “비정치적 구빈법”(non-political Poor Law)의 창시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맞는다. 럼포드가 창안한 “빈헨에서의 장대한 작업장 프로젝트”는 1796년 영국 독자들에게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거지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면서 시작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어떤 구호품도 받지 않는다”(No Alms will be Received here)는 문구를 현관에 걸어놓았다 (Mason 312n). 벤담도 럼포드와 비슷한 대규모의

2) 작업장은 17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제를 위해 가서 일하도록 지어진 일종의 공공기관이다(Mason 315n).

작업장을 제안했다. 이 시가 쓰인 시기와 같은 1798년에 출판된 그의 『개선된 극빈자 관리』(*Pauper Management Improved*)는 이보다 몇 년 전에 등장한 이상적 감옥 계획에 대한 책인 『파놉티콘』(*Panopticon*)과 짝을 이루는 저서이다. 이 책은 극빈자 대책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한 “국립 자선 회사”(National Charity Company)의 건립을 이야기한다. 이 회사는 “짐스러운 빈자 전체”(whole body of the burdensome poor)에 대한 “통합된 권위”(undivided authority)를 가지며 총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260개의 작업장(Industry-house)을 시작 목표로 잡았다. 그리고 각 작업장은 거주하면서 노동하는 2000명의 인원을 수용하며, 이들은 모두 각각 감독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절대적인” 권위 하에 놓이게 된다(Himmelfarb 78-79). 이 두 대규모 프로젝트의 특징은, 둘 다 자발적인 사적 자선을 강조하면서도 전문적인 관료 당국이 “자선의 대상”을 선발함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꼽은 것인데, 이 부분이 특히 위즈워드가 반감을 표시했던 부분이다(Mason 312n).

이 시에서 위즈워드는 “짐스러운 빈자”라는 벤담의 표현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리주의자인 벤담 식의 논리를 사용하여 그와는 반대로 이 떠돌이 거지의 유랑을 옹호한다. 그가 논변하는 이 거지의 “효용”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무력한 거지의 존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 거지는 “외면적으로 너무나 무력해 보이기 때문에”(So helpless in appearance, 25)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선행을 한다. 특히 거지와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인해 “산책하며 지나가던 말 탄 여행자”(sauntering horseman-traveller, 26)가 “부주의한 손길로 구호품을 땅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늙은 남자의 모자 안에 안전하게 동전을 놓는” 의식적인 자선을 행하는 장면은 직접적인 마주침이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결과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심지어 우편 배달하는 소년도 “덜 시끄럽게” 길가로 방향을 틀어서 노인을 “부드럽게”(gently) 피해서, “입에 욕을 담거나, 마음에 분노를 담지 않은 채” 지나간다(40-43). 또 거지는 그를 보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신이 착한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가 집집마다 절룩거리며 돌아다닐 때,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자선 행동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79-82). 그와 마주친 그 소소한 일들이 없다면, 이러한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사람들은 이기심과 차가운 태도에 “확실히” 다가가게 된다(86-87).

이러한 위즈워드의 논리는, 거지는 사회악이라는 판단 하에 보이는 곳에서 거지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당대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중세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존재들은 나병환자나 흑사병 환자와 같은 전염병 환자들이었으나 16,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는 거지와 광인에게로 확대되고, 거지의 “대 구금”(great imprisonment)이 몇 차례에 걸쳐 전 유럽에서 일어난다(Geremek 207). 이러한 태도

변화는 사회의 병적 요소가 된 다수의 거지와 유랑자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동시에 당시에는 이러한 격리 지향의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많은 사상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다. 18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가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근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들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로 강조점이 옮겨갔다(Geremek 231).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사회 진보가 인간의 연대(solidarity)와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가난의 원인을 빈자의 무지와 부자의 연대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박애적 움직임(Philanthropic movement)은 사적 자선을 강조하였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Condorcet, Godwin, Wolff 등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호는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억압적 정책은 형제애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Geremek 241). 그러나 워즈워드가 내세우는 반론은 독특하게도 이러한 “인간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는 베풀음의 효용 논리를 가지고 정책적,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 사회 심리학적인 효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지의 존재는 직접 대면을 통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자선 행위의 촉발 효과 뿐 아니라, 사적인 자선을 베풀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 거지를 본 사람들이 느끼는 자존감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심리적 효용을 낳는다. 이 부분 역시, 문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다음 인용문은 특히 거지를 바라봄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축하하게 된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기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all behold in him
A silent monitor, which on their minds
Must needs impress a transitory thought
Of *self-congratulation*. (114-17, my italics)

이 논리는 “극빈 상태의 사람”(abject poor, 135), “가난한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the poorest poor, 140)이 “피곤한 삶” 가운데 몇 순간, “그들이 작은 축복의 아버지이자 중재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열망했다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140-44). 그들은 우리가 “한결같은 인간의 마음”(one human heart, 146)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 떠돌이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다. 또한 자신도 살기가 어렵지만, 늙은 거지에게 금요일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화자의 이웃 여자는 이 거지에게 음식을 준 후에 “들뜬 마음을 안고 문에서 돌아와 그녀의 불가에 앉아서 천국에서의 그녀의 희망을 지어간다”(from her door / Returning with exhilarated heart, / Sits by *her* fire and build *her* hope in heaven. 152-54, 강조는 인용자). 이 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그녀의”라는 소유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선의 효용은 배운 사람의 심리 상태에 미치고 있다.

워즈워드가 말하는 사회 심리적 효용은 당대의 정책적 논의와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일 뿐 아니라, 동정을 위해 거지가 필요하냐는 반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시에 등장해서 이러한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들”(Statesmen)과 구별되는 일반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사회에 퍼져있는 민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지만, 대중의 인식에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세기로 넘어가는 무렵, 워즈워드가 시에서 언급하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려면 과거에서부터 변화해 온 빈곤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역사학자 브로니슬로 게레멕(Bronislaw Geremek)의 설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중세에는 기독교가 사회 전반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선은 종교적 입장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중세 초기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었고, 교회 수익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러나 중세 초기에는 가난 그 자체가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개인의 빈부는 신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에 다만 겸허히 자신의 숙명적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11, 12세기에 들어오면서 가난은 정신적인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사회 구조의 변화는 증가하는 빈곤 문제를 처리하고 “부”(moneyed wealth)를 정당화해야 하는 필요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선 기관의 발달과 탁발수도회의 성립을 촉진시켰다. 자선 사업은, 비록 본질적으로는 동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신중한 계산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것은 구원을 “사는” 탁월한 방법이자 자신의 부와 종교적 원칙을 드러내는 과시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난이 정신적 가치로 인식되고, 자신의 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선이 사회에 널리 퍼지는 현상은 구걸하는 삶을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개혁론자(Reformist)들의 비판이 시작되었다(Geremek 17).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정책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문학적 자료나 연대기, 도시 기록등에 나타난 사회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당시 가난이 정신적 가치로서 찬양받는 현상이 자선의 증가와 함께 증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질서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호품 기부를 통해 구원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했다(Geremek 18).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세 일반인들의 자선행위는 워즈워드가 말하는 마을 사람들, 특히 “천국에서의 그녀의 희망”을 짓고 있는 이웃집 여자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정책은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사회의 지적인 흐름은 기독교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들을

주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눈앞의 거지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한 곳에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중세적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이 된다. 심지어 이 떠돌이 거지마저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타인에게 행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머리에 축복을 이고” 지나간다.

그러나 중세 봉건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산업 자본주의가 경제 전반을 지배하면서 빈곤을 보는 시각은 이러한 종교적 입장과 사뭇 달라졌다. 16세기에서 18세기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화폐 중심 경제의 확장과 도시의 성장은 극도의 부자와 빈자를 빠르게 만들어냈고, 사회 그룹간의 분리를 강조했으며 거대한 규모의 빈곤의 확장을 만들어냈다(Geremek 76). 또,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빈곤은 심화되어갔다(93). 인구 밀도의 변화 또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기류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구분포는 자주 화제가 되었으며 맬서스 이전에도 사람들은 기근과 가난이 인구 과밀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95).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영원히 자선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책과 보조 프로그램의 목표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99). 헨리 8세의 포고령(the Edicts)과 엘리자베스조의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163-67).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대규모의 빈곤은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다(99). 그렇기에 더욱더 사회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기도 하다.

대규모의 빈곤이 가져온 광경은 거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위즈워드는 이 시를 통해 자선이 여전히 종교적 구원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심리적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당시에 만연했던 빈곤에 대한 반감도 드러낸다.

‘Tis Nature’s law
That none, the meanest of created things,
Of forms created the most vile and brute,
The dullest or most noxious, should exist
Divorced from good (73-77)

이 부분에 나타난 거지에 대한 묘사는 위즈워드의 시각이 아닌, 당대 사람들의 시각이다. 특히 “dullest”라는 부분은, 당시 빈곤이 나태로 인해 생겼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헨리 8세의 포고령과 엘리자베스조의 구빈법은 모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지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역시도 벌금을 물어야 했다(Geremek 164). 거지의 자녀들을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기술자의 도제로 보내는 법제정과 17세기 작업장의 설립 등 당시의 사회 정책들은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래, 나태함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노동이 재교육이자 사회악을 치료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Geremek 238). 이렇듯 가난이 나태함과 연결되면서, 사실상 가난을 정신적인 가치로 여겼던 중세적 시각은 어느 정도 인식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18세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선 행위를 통해 얻는 구원과 나태함으로 인해 초래된 혐오스러운 가난이라는 두 가지 인식이 공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워즈워드가 이 시에서 거지의 모습이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잊혀질 수 있는 기억”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당시 가난에 대한 혐오감이 더 지배적인 정서였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워즈워드는 이러한 거지에 대한 혐오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자선의 기억과 그 심리적 효용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2. 스미스적인 관망자로서의 화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워즈워드식 심리적 효용을 블레이크가 풍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동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가능한 반박을 생각하려 했던 워즈워드의 시도를 지나치게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된다(Mason 308). 그가 이야기하는 효용은 정책적 차원의 거대 담론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을 대면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러한 느낌이 어떠한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18세기의 경험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느낌”(feeling)을 강조하고, 이를 해석하려 했던 당대의 사상적 조류와 맞닿아있는 논의이다. 이 지점이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흄이 말하던 “공감”(sympathy)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감론은 사회의 형태를 설명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었다(Mullan 25). 이 중에서도 스미스의 공감론은 “공감”이 작용하는 시스템 상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관망자”(Spectator)³⁾ 사이의 거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흄이나 허치슨의 공감론과 차이를 보인다(Mullan 43). 본고에서는 시적 화자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이러한

3) Spectator를 관망자로 옮긴 것은 이 번역이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거리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은경 69. n4).

관망자가 가지는 거리로 파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의 공감론을 토대로 시의 화자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위즈워드의 시적 성취 및 그가 구상하는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공감론을 펼치는 『도덕감정론』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How selfish soever man may be supposed, there are evidently some principles in his nature, which interest him in the fortune of others, and render their happiness necessary to him, though he derives nothing from it except the pleasure of seeing it. (9)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점을 일견 인정하는 듯이 첫 마디를 시작한다. 그는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 즉 홉스나 맨더빌이 말하는 이기적 인간에 대한 논의를 짚으면서 이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sociable)이라고 전제를 세운다. 사회적이라는 속성은 홉스나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서 스미스는 “공감”을 재정의한다. 스미스의 “공감”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어떠한 감정과도 연결된 우리의 동질감을 의미한다.”⁴⁾ 그는 “당사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도, 이를 바라보며 당사자의 상황을 생각하는 모든 주의 깊은 관망자의 가슴에 유사한 감정이 솟아오른다”라고 이 공감의 원리를 규정한다(TMS 10).⁵⁾ 이 문장에서 몇 가지의 스미스적 공감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감정의 움직임에는 “관망자”와 “당사자”(the person principally concerned)라는 두 관계자가 존재한다. 스미스는 여기서 “피해자”(victim)나 “고통받는 사람”(sufferer)이라는 단어 대신 “당사자”를 사용함으로써, 공감의 범위를 모든 감정과 상황에 대한 것으로 넓혀놓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응시”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단순히 상대의 고통이나 기쁨을 보고 이에 공감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다. 당사자는 자신을 보는 관망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들의 공감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의 표출을 조절하며, 관망자는 자신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한다. 데이비드 마샬(David Marshall)이 지적하듯,

4) “Pity and compassion are words appropriated to signify our fellow-feeling with the sorrow of others. Sympathy, though its meaning was, perhaps, originally the same, may now, however, without much impropriety, be made use of to denote our fellow-feeling with any passion whatever.” (TMS. 10)

5) “whatever is the passion which arises from any object in the person principally concerned, an analogous emotion springs up, at the thought of his situation, in the breast of every attentive spectator.” (TMS 10)

이러한 공감과 관망의 관계는 일종의 만화경(kaleidoscope)처럼 얽힌 응시의 관계망이다 (qtd in 민은경 75). 이 응시의 관계망 속에서 적절한 공감을 얻어내고 표출하기 위해, 스미스의 공감은 “주의 깊은 관망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수동적인 작용이 아닌, 타인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력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TMS 13).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더라도 관망자가 느끼는 공감은 “유사한 감정”일 뿐 완벽하게 당사자의 감정과 일치될 수가 없다. 관망자의 느낌은 “상상력이 복사해 낸 그 자신의 느낌이지 당사자의 느낌이 아니다”(TMS 9). 게다가 이 공감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상상을 통한 상황의 전환은 단지 순간적인 따름이다”(TMS 21). 다시 말해, 스미스의 공감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감정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 내도 다음 순간 사라지는 그러한 감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 내에서 타인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적인 자아를 설정하고 살아가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적인, 공정한 관망자”가 된다.

워즈워드의 화자는 시의 첫 줄에서부터 자신이 “관망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는 나이 든 거지를 “보았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일견 냉정한 시선은 일반적인 관망자가 아니라, “공정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의 역할을 그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디슨과 스틸의 스펙테이터 지의 화자로 내세우는 “Mr. Spectator”도 자신이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관망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작가가 작품에서 이러한 관망자적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현상들을 거리두기를 통해 파악하려는 시도으로써, 워즈워드가 이 시에서 시도하는 바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화자는 거지의 상황을 마치 그림을 묘사하듯 그려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거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거리를 두고 이야기한다. 화자가 그려내는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감을 통해 어떻게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는지를 강조한 스미스의 논의의 예시처럼 보인다.

... minds like these,

In childhood, from this solitary being,
This helpless wanderer, have perchance received
(A thing more precious far than all that books
Or the solitudes of love can do!)

That first mild touch of *sympathy* and thought,
In which they found their kindred with a world
Where want and sorrow were. (101-08, my *italics*)

이 “무력한 방랑자”를 보면서 느끼는 공감은, 책이나 설교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은 거지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잊혀 버리는 유한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중한게”(Man is dear to Man, 140) 되어간다. 이렇게 공감의 원리를 통해 보면, 위즈워드는 거지의 효용가치가 자선 행위를 촉발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이 거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당시,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했던 “폭력적인 감정의 제어”와 “감정의 순화”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늙은 거지의 모습이 불러일으킨 공감이 우편배달부 소년이 “욕을 하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게” 만드는 상황은, 스미스가 말하는 “비사회적 감정들”(unsocial passions, TMS 34)을 통제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정적 반응은, 스미스의 논의에서 가장 첫 단계에 나오는 “육체에서 근거한 감정”에 대한 공감이다(TMS 29-31). 극도의 허기, 고문당하는 고통 등 타인의 신체가 느끼는 감정은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바라보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불유쾌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상을 통해 상대방의 고통을 짐작하고, 이를 통해 “공포”를 느낀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포”에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즉, 내가 저 상황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 대한 안도가 되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는 공감에서 출발한 공포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TMS 13). 이렇게 본다면, 이 시에 나오는 “거지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실제로 벤담 등이 원하는 사회적인 효용을 충분히 일으킨다. 위즈워드가 굳이 벤담의 언어인 “불필요한”(useless)을 이용하여 시를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실질적인 효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거지는 “He travels on, a solitary Man”(24, 44)이라고 두 번에 걸친 반복을 통해 강조되듯이 “고독하다”고 표현된다. 그러나 그는 고독하지만 사회와 동떨어져있지는 않다. 비록 시 안에 그의 반응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화자의 존재도 그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님은 상기시킨다. 이러한 “고독하지만 사회에 속한” 거지의 모습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스미스의 명제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거지의 모습을 없애고 싶어 하는 정책입안자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그와 함께 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Simpson 169).⁶⁾ 그리고 이 고독한 거지는 동시에, 비자발적인 듯 보이지만, 자연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자연

6) 심슨(David Simpson)은 이 시에 나타나는 공감을 벤담의 논의를 기반으로 풀어내고 있다.

속에서 “운으로 얻은 음식”을 작은 새들과 나눠가면서 산다(186-87). 그리고, 워즈워드가 주장하듯, 그를 작업장에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의 눈 속에서 살았듯이, 자연의 눈 속에서 죽을 것이다”(As in the eye of Nature he has lived, / So in the eye of Nature let him die. 188-89).

물론 이러한 모든 논의는 화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화자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의 모습에 다른 여러 상황들을 상상한다. 기본적으로 화자가 거지에 대해 묘사하는 바가 “외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공감이 결국 타인의 외적인 모습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화자는 이 거지를 어려서부터 알아왔지만, 그가 아는 것은 단지 이 거지가 “아주 늙었다”는 사실밖에 없다 (22-23). 또한 그는 거지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도 단지 상상을 통해 얻어내고 있다. “관망자”로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도, 이러한 공감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화자의 거지에 대한 서술은, 워즈워드가 느끼는 한계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 현상은 하나의 측면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연결 고리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워즈워드는 이러한 한계를 화자의 거리두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 한계 속에서도 “공감”이라는 사회적 작용을 통해 어떻게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을 갈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3. 최소한의 인권 존중

화자는 거지를 그대로 놔두라고, 그냥 자연과 벗 삼아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하면서 살도록 놔두라고 주장한다.

And let him, where and when he will, sit down
Beneath the trees, or by the grassy bank
Of highway side, and with the little birds
Share his chance-gathered meal; and, finally,
As in the eye of Nature he has lived,
So in the eye of Nature let him die. (184-189)

그러나 화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시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거지의 모습은 거지가 완전히 문명과 떨어져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은 확연히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사는 거지는, 의도치 않게 문명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또한 자연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거지가 앉아서 몸을 쉬고 있는 둘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말을 쉽게 타고 내리려고 만든 것이며, 거지는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음식 부스러기를 새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두 가지 형태의 자선이 모두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워즈워드는, 덩스가 지적하듯, “사회적 기관을 이성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의 정신을 비판하고 있다”(qtd. in Mason 309n).

또한, 화자는 거지의 거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May never HOUSE, misnamed of INDUSTRY!
 Make him a captive! for that pent-up din,
 Those life-consuming sounds that clog the air,
 Be his the natural silence of old age! (172-75)

이러한 워즈워드의 반감은 스미스가 “1662년 정주조례”(Act of Settlement)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To remove a man who has committed no misdemeanour from the parish where he chooses to reside, is an evident violation of natural liberty and justice. . . . There is scarce a poor man in England of forty years ago, I will venture to say, who has not in some part of his life felt himself most cruelly oppressed by this ill-contrived law of settlements. (WN 144. qtd. in Himmelfarb 61)

실제로 이 부분은 당시 많이 인용되고 논의되었으며, 1795년 정주법의 개혁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Himmelfarb 61). 워즈워드 역시 거지가 가진 자유 의지를 묵살한 억압적 사회 제도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당국은 이 거지와 같은 “유랑자”들에 대해 대단히 혹독한 처사를 가하고 있었다. 1780년 이후, 빈민 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처사는 더욱 가혹해져서, 1792년에 유랑자들에게 최소한의 감옥행을 필수적으로 부가하는 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강도와 떠돌이”들은 재교육소에 7일간 갇히거나 채찍을 맞아야 했다(Lees 106). 워즈워드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사에 반발하고 있음은 위에 시를 인용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워즈워드는 이렇듯 거지를 그냥 놔두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낸다. 이러한 결론은 사실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님을 워즈워드는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시에서 하는 작업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시인은 “효용”의 논리에 따라 거지나 방랑자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인 “공감”을 동원하여 방랑하는 거지의 존재도 사회적인 어떤 “효용 가치”를 지니는 이야기함으로써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지에게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존중해줘야 함을 시를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Works Cited

Primary Source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s. D. D. Raphael and A. L. Macfie. Indianapolis: Liberty Fund, 1976.
- Wordsworth, William. "Old Cumberland Beggar." *Lyrical Ballads*. Ed. Michael Mason. London and NY: Longman, 1992. 308-316.

Secondary Source

- 민은경. 「타인의 고통과 공감의 원리」, 『철학사상』 2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 Geremek, Bronislaw. *Poverty: A History*. Trans. Agnieszka Kolakowska. Oxford: Blackwell, 1994.
- Himmelfarb, Gertrude. *The Idea of Poverty: England in the Early Industrial Age*. NY: Vintage Books, 1985.
- Lees, Lynn Hollen. *The Solidarities of Strangers: The English Poor Laws and The People, 1700-1948*.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Mullan, John. *Sentiment and Sociability: The Language of Feel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Sambrook, James. *The Eighteenth Century: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Context of English Literature, 1700-1789*. London: Longman, 1986.
- Simpson, David. *Wordsworth's Historical Imagination: The Poetry of Displacement*. NY: Methuen, 1987.

ABSTRACT

Poverty and Sympathy: Wordsworth's "Old Cumberland Beggar"

Aran Park

William Wordsworth's "Old Cumberland Beggar" is a "problematic" poem which has raised diverse critical responses. Most critics think that this poem shows Wordsworth's political view about the Poor Law based on his memo in the Fenwick note. However even among the critics who admit its political implication, some argue that Wordsworth supports the Poor Law and the others argue that he is against it.

This essay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overty and the poor relief which was a hot issue in late 18th century England. This poem explores several different views on that issue from the utilitarian view which asserts that the poor and the vagabond should be swept away for the whole society to the religious view which thinks through personal poor relief one can obtain God's blessing. This essay tries to show that the problematic part which tells the utility of the beggar actually criticizes the utilitarian way of poor relief using their own logic of utility. On the attitude of this poem's speaker towards the old beggar, this essay examines its implication based on the "sympathy" and the "spectator" of Adam Smith'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Keyword wordsworth, poor law, poor relief, poverty, utilitarianism, sympathy, spectator